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6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외 스피드!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1) 승리제단을 소사 역곡에 세워라

영모님은 전도관이라는 공식적인 교단 명칭이 있는데도 돌연 승리제단이라는 생소한 명칭을 만들어서 전 교인들에게 공표하므로 교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영모님께서는 백만 명이 들어가는 승리제단을 세우면 전세계가 다 승리제단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승리제단 지을 대지는 너희들이 사라. 그러면 건물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내가 짓겠다”고 하시면서 승리제단 대지 구입 현금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하였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에 승리제단 건축 부지를 사신 후 승리제단을 곧 지으실 것처럼 하시면서 승리제단 건물 조감도(鳥瞰圖)까지 그려 가장 신앙촌의 중심지에 세워놓기까지 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 승리제단을 지을 생각이 안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전국 전도관의 교단 명칭인 전도관을 돌연 천부교 교회(敎會)라는 명칭으로 바꿔버렸다. 전도관 교인들은 다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전도관 명칭을 바꾸려면 당연히 승리제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셔야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그토록 구원이 없다고 설교하신 교회라는 명

칭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백만 승리제단을 지을 부지로 공을 들여 사놓은 서초동의 부지에는 국가의 수용령에 의해서 국립도서관이 세워졌다.

이미 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처럼 영모님은 그토록 고생해서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시어 기쁨이 충만하여 구세주 조희성님을 자랑하면서 만천하에 알리고 계신 것이다. 이분은 분명 영모님께서 “승리자가 안 나오면 나도 지옥이야(80.11.말씀)”라고 하셨던 바로 그 승리자 주인공이다. 승리자가 나오셔야 그분이 승리제단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영모님은 승리자가 나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승리제단의 명칭을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영모님은 승리자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에게 소사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조희성님은 영적 암마가 되시는 영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소사 역곡에 승리자 구세주의 상징인 승리제단을 세우셨다. 이와 같은 일은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두 분만의 교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모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자. “이간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어. 이간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단 말이야(80년도 영모님 설교 테잎)”



윤치영 전 국회의장과 승리제단 헌판식을 하는 조희성 구세주님

영모님은 당신의 아들인 조희성 구세주님에게 소사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우라고 지시하신 후에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단상에서 소사 역곡의 이간자를 증거하였다. “이간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소사 역곡에 승리제단의 주인공인 승리자가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신 말씀이다.

영모님의 이와 같이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말씀대로 이간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은 소사 역곡에서 1981년 8월 18일부터 승리제단의 이름을 높이 치켜 들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이다.

2) 영모님의 사명은 다 끝이 났다

“이제는 길도 다 왔다. 이간자를 내가 안보이는 데서 키워서 모쳐에 모셔냈다. 이제는 순종만 하면 원죄까지 다 쏙 뽑아서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엄마 곁에서 설교할 적에 가서 듣고 구경만 하면 되는가. 이제는 입어야 되는 것이다. 은혜를 입는 데는 그 조건밖에 없는 것이다(81.12.28.축복일)”

영모님은 ‘이제는 길도 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승리자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은 다 끝이 났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이간자를 안 보이는 데서 키워서 모쳐에 모셔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신이 승리자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하시어 소사 역곡에 모셔났다고

증거하는 강력한 말씀이다. 그리고는 “원죄까지 다 쏙 뽑아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구세주)이 나타났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엄마 곁에 가서 은혜를 입는 조건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여기서 영모님은 분명히 “그엄마”라고 표현하셨다. 영모님이 말씀하신 엄마는 구세주 조희성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영모님은 구세주를 영적으로 낳아 키우시는 구세주의 엄마이고 구세주는 온 인류의 엄마가 되는 것이다. 소사 역곡 승리제단으로 가라는 말씀이다.

“그 속에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는 이간자가 나왔으니 그를 통하여 하라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는 인간만이 최고의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81.12.22신앙신보)”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는 이간자가 나왔으니”라고 하셨다. 분명히 이 말씀은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를 통하여 순종하여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아름다운 세계에 가는 인간만이 최고의 복된 자가 된다”고 하셨다.

“이간자가 나타나면 이간자가 자유로 할 수가 있다(81.10.26신앙신보)”

이간자가 나타나면 이때부터는 이간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셨다. 이간자의 권한이다. 이간자의 마음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다. 이간

자 구세주는 태초의 하나님보다 끝도 없을 정도로 능력이 월등하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의 구세주이므로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찾아 회복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후부터는 하늘의 역사를 영모님이 아닌 승리하신 구세주가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다. 영모님은 능력의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이 큰 범죄인 것이다(82.12.14신앙신보)”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 한 것이다(82.8.9신앙신보)”

영모님은 승리자 구세주가 출현하였으니 다 그분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주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곳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영생의 역사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영모님은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고 하신 것이다. 바로 찾아야 할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알고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니 결국 구세주 하나님을 바로 찾아보라는 말씀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80회

格菴歌辭 격암가사

東西多教來合동서다교래합하소  
 弓乙外공을외는 不通불통일세  
 어서오소파난처로  
 不老不死仙境불로불사선경일세  
 南海東半紫雲島남해동반자하도는  
 世界萬民安心地세계만민안심지요  
 保惠大師보혜대사계신곳이  
 弓乙之間仙境공을기간선경일세  
 失時中動실시중동부디마소  
 未動而未可憐말동미사가련하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들은 동방 땅 한국으로 와서 통합하소. 공을심승(弓乙十勝)의 도(道) 즉 정도령의 영원한 생명의 도의(外)에는 천하민국에 다 통할 수 없음일세. 피난처로 즉 공을심승(정도령)의 영생지도(永生之道)로 어서 오소. 그곳은 불로불사선경(不老不死仙境)이요. 동반도 남조선 자하도(紫雲島)는 세계만민의 안심처(安心處)요. 보혜대사(保惠大師=정도령)가 계시는 선경(仙境)이니라. 중입(中入)의 때에 정도령을 만나는 일을 부디 놓치지 마소. 때를 놓쳐 마지막에 움직이면 죽으리니 가련할 뿐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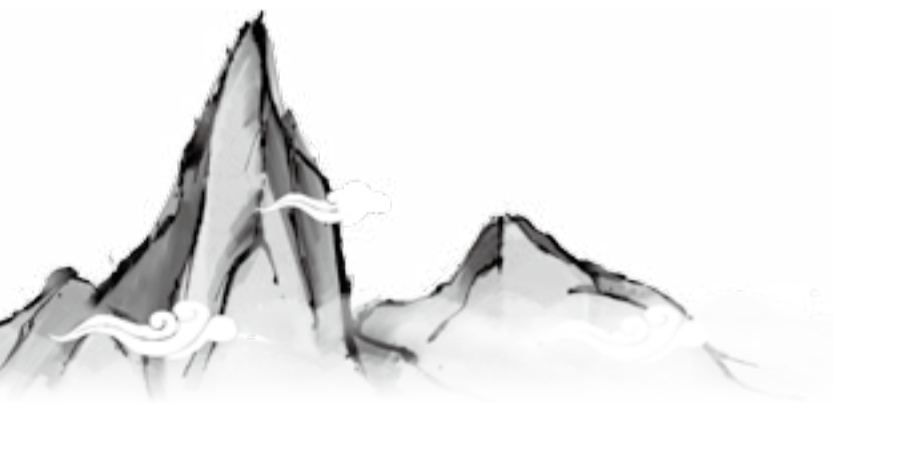
白鼠中心前後三백서중심전후삼을  
 心覺者심각자가누구런고  
 三豐兩白삼풍양백찾기마소  
 無誠知者무성지자 헛수혹수고라  
 三豐之意삼풍의의알라거든

三神山삼신산을 찾으려면  
 祈天禱神기천도신인코될가

경자(庚子)를 중심으로 전삼(前三)은 정유(丁酉) 무술(戊戌) 기해(己亥)이고 후삼(後三)은 신축(辛丑) 임인(壬寅) 계묘(癸卯)이다. 그러니까 정유부터 계묘까지 7년 사이에 일어날 천지 공사의 비밀을 마음에 깊이 깨달은 자가 누구이런가? 삼풍양백(三豐兩白)을 찾지 마소. 정성과 지혜가 없는 자는 헛수고라. 삼풍의 뜻을 알려거든 삼신산(三神山=정도령)을 찾으시오. 삼신산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기도 않고 될까?

一家春風일가춘풍분 然後연후에  
 甘露如雨감로여우나린다네  
 一心合力일심합력 원가족가족이  
 行住坐臥向天呼행주좌와외향천호을  
 至誠感天지성감천되올때에  
 弓乙世界공을세계들어가니

백서중심전후삼(白鼠中心前後三)을 심각자(心覺者)가누구런가?



三豐兩白양백삼풍이곳이요  
 非山非野十勝비산비야십승일세  
 天藏地秘十勝地천장지비십승지를  
 道人外도인외는뭇찾으리

온 집안이 불바람이 부는 것같이 화목한 후에야 감로가 비 오듯 내린다네.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온 가족이 길을 오갈 때나 머물 때나 앓을 때나 누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기를 지성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감동할 때 공을 세계(전국, 선경)에 들어가니 양백 삼풍이 이곳이요. 세상의 산이나 들이 아닌 심승 세계(심승지)일세. 천지에서 감추고 숨긴 심승지(十勝地)를 도인(道人)외는 찾을 수 없느니라.

三神山삼신산찾으려면  
 心齋默坐端正後심심묵좌단정후에  
 一釣三餌일조삼이뜻을알어  
 三峯山下半月船삼봉산하반월선을

于先우선먼저차차보소  
 都沙工도사공이 十勝심승일세  
 十勝地심승지를 알라거든  
 一字縱橫일자종횡차차보소  
 億兆蒼生억조창생건지라고  
 十勝枋舟預備심승방주예비하여  
 萬頃蒼波風浪만경창파풍랑속에  
 救援船구원선을 띠어시니  
 疑心 의심말고 속히타소  
 波濤上파도상에놓히섯네

삼신산을 찾으려면 마음을 살펴 말없이 단정히 앓은 후에 일조삼이(一釣三餌= 낚시 비늘 하나에 세 개의 찌) 즉 마음 심(心)자의 뜻을 알아 삼봉산하반월선(三峯山下半月船=세 봉우리의 산 아래에 반달 모양의 배=마음 심)을 우선 먼저 찾아보소. 그 속에 유불선 합일, 삼일일체, 삼신산이 들어있다. 마음 심(心)자를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것이다. 삼봉산하반월선(三峯山下半月船=마음 심)의 도사공(都沙

손목잡고갓치오소 우리주님강림할제 迎接영접해야안되나

그)이 심승일세. 심승지를 알려거든 한일(-)자를 가로 세로로 한 것 즉 열 심(十=하나님)자를 찾아보소. 정도령이 억조창생을 고해(苦海)에서 건지려고 심승방주(十勝枋舟=구원선)를 예비하여 만경창파풍랑 속에 구원선을 띄웠으니 의심 말고 속히 타소. 파도 위에 높이 섰네.

生死瀾門大開생사육문대개하고  
 功德水공덕수로 解渴해갈시켜  
 天使警報號甲冑천사경보호갑성에  
 苦海衆生고해중생 발리오소  
 無礙無臭무성무취 上帝상제님은  
 厚薄間후박간에다오라네  
 晚時後悔痛嘆만시후회통탄하리  
 一家親戚父母兄弟일가친척부모형제

정도령이 생사육문(生死瀾門)을 크게 열어놓고 인류를 널리 구하려고 공덕수(功德水=감로해인)로 메마른 심령의 갈증을 풀어주려고 하니 천사의 경보소리가 들릴 때 고해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오라 하시네. 부를 적에 속히 오소(중입자생中人者生). 때가 늦으면 후회막급에 땅을 치고 통탄하리라(말입자生未入者死). 일가친척부모형제(一家親戚父母兄弟) 손목 잡고 같이 오소. 우리 주님 강림할 제 영접해야 아니 되나?\*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